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함평군, 미니 단호박 올해 첫 수확...작년 비 20여 일 빨라

하우스 시설 내 난방 효과...수확량 증가 예상

초여름 날씨를 보인 26일, 최근 간편 영양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함평 미니 단호박이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 농장에서 첫 수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0여 일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하우스 시설 내 난방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 시기에 국내산 단호박이 전무할 것을 고려할 때, 이번에 수

확된 미니 단호박의 상품성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한줄 재배 하던 것을 올해부터 지그재그로 두 줄 재배를 하게 되면서 올 예상 수확량도 지난해 7천여 개에서 3배가량 늘어 난 2만 여개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농가에서 개별 판매하던 미니 단호박은 올해부터 귀농

인 7명이 합심해 지난해 결성한 '나눔의 작목반'을 통해 온라인과 27일 개막하는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이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단호박은 206ha, 3025가를 통해 전국 생산량의 13%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타 지역보다 뛰어난 품질과 당도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함평=김광준 기자

보성군, 봄철 미세먼지 저감 등 피해예방 총력

대기배출 및 비산먼지 사업장 203개소 특별점검



보성군은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에 미세먼지 저감 및 비산먼지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7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다음달까지 미세먼지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자가측정, 환경관리인 선정 및

법정교육 이수 등을 점검한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소주간'을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흡입 효율향상을 위한 배출시설 개선과 먼지 제거 및 세정수 교체, 비산먼지 청소 등을 실시토록 독려하고 있다.

'비산먼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장 등 126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한달간 특별점검

을 실시해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 이행, 방진벽 또는 방진망 설치 유무, 차량의 세균 및 측면 살수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나부터 실천하는 친환경교통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공회전·급출발·급제동 안하기, 내차 배출가스 점검 및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하기 등 미세먼지 저감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고품질 쌀의 시작 '범씨소독'으로~



키다리병 등 병해충 사전예방

고흥군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고품질 쌀 생산의 시작점인 '범씨소독' 중점 홍보에 나선다.

키다리병, 벼 잎선충, 도열병 등 범씨를 통해 전염되는 병해충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벼농사의 첫 단계인 소금물가리기 및 올바른 범씨소독 방법과 범씨 파종요령 등을 기

술지도 한다.

일반 재배 시 적용약제 별로 희석 배수에 맞게 희석한 다음 약액 20L당 범씨 10kg을 30℃의 물 온도에 맞춰 48시간 소독하고

친환경 재배 시 손쉽게 할 수 있는 온탕소독은 60℃의 물 100L에 범씨 10kg을 10분간 담았다가 바로 찬물에 30분 담근 후 석회유황(22%) 50배액을 넣고 30℃에서 24시간 침지하여 키다리병 등 각종 종자전염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분담에서 벼 키다리병 발생이 증가해 병원균의 종자 감염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철저한 범씨소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광군, 우수 농·수·축산물 서울시 공공급식 공급

전국 4개소, 서울시도·농상생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선정

영광군은 지난 25일 서울시도·농상생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체로 선정되어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와 상호 협약을 맺어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등 식재료를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국의 4개 지자체만 선정한다.

이에 영광군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 공공급식 지자체 선정 사업에 공모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4개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영광군은 올 하반기에 서울시 자치구와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육 및 도·농 간 체험·교류도 시작하며, 영광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 25 자치구 전역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총 7,338개소 식수인원 299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ha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급식에 소비되는 품목을 생산,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작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지리산정원, 알록달록 철쭉으로 화려한 변신

구례군 광의면 자초봉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정원 내 구례생태숲과 야생화테마랜드에 철쭉이 활짝 피어 봄기운을 완연히 풍기고 있다.

구례생태숲은 산림생태계를 복원 및 보전하고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 155ha의 산림지역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 조성한 생태친화적 공간이다. 현재 이곳에는 산수유, 구상나무, 노각나무, 층층나무, 진달래, 노랑원추리, 지리대사초, 산뽕나무, 단풍

나무 등 240여 종의 식물자원이 어우러져 자라고 있다.

또한, '철쭉동산'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철쭉이 피어 구례생태숲 일원을 뒤덮으며 장관을 연출한다. 올해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생태숲 일원 철쭉이 연출하는 경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야생화테마랜드는 지리산권역의 100여 종류의 야생화를 24ha에 식재하여 계절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야생화 테마원을 비롯한 음악분수, 실내온실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는 야생화 테마공간이다.

한편, 구례군 광의면과 산동면 일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산림 복합휴양단지인 지리산정원은 야생화생태공원과 산림휴양타운이 조성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2,000원으로 구례군민 또는 숙박 시설 이용자는 무료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신안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튜링축제기간 홍보관 운영



신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0일과 21일 제11회 신안군 튜링축제 현장에서 신안군센터 홍보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는 축제 현장에서 방문한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알록

달록 채소가 함께 놀자 라는 주제로 채소·과일 도장 찍기와 발룬자동 차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양치교육 등 체험활동과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직접 찾아가는 양치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말리 서울에서 교육에 참석한 보호자는 이번 교육으로 인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항에서 오신 보호자는

포항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치를 물어보셨고 반드시 등록 급식소에 자녀를 보내겠다고 앞으로 더 많은 활약으로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센터장 박인덕 교수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신안센터 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긴장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수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목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